

# 姜시장, 내년 국비 확보 '광폭 행보'

### 기재부 2차관·사회예산심의관 등 간부 20여명 면담 오늘 국민의힘 광주시당서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내년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상대 제2차관과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면담한 데 이어, 예산실 주요 부서들을 방문해 내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6월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8일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18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최상대 제2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국산 AI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역사이팅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 ▲아시아문화예술인 교류센터 건립 ▲미래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광주천변 미디어아트 친수공간 조성 ▲아시아 철학·신화 킬러콘텐츠 개발 ▲제3순환 고속도로망 도로 개설 등의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강 시장은 면담에서 인공지능 집적단

지 조성, 미래모빌리티 육성 사업 등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돼 민선 8기 시정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 최상대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아울러 각 심의관과 예산실 주요 부서를 방문해 분야 별로 내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광주시는 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과 꾸준히 소통하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 대응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공직자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 예산 확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부처의 정책방향을 꼼꼼히 분석해 현안과 국정과제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전남도, 남도장터 법인화 '청신호'

###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 조건부 동의

전남도의 농특산물 종합유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2일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예)남도장터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해 조건부 동의한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행안부 심의 결과를 공개해 도민 의견을 듣고, 조례·정관 제정, 임원 선임, 총회 개최 등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mall.kr)가 매년 급성장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 (예)남도장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예)남도장터는 온라인몰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기된 안전사고 투명한 자금 집행·관리의 어려움,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등 서비스 불안정,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품질과 고객을 관리하는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가치를 실현할 공공형 종합유통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한 상품기획 (제품개발·브랜딩)부터 홍보·마케팅, 판매, 배송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할 수 있어 전남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탠다. /김재정기자

# 시의회, 신활력추진본부 상임위 배정 '고심'

### 행자위 배정 의견 우세...운영위원장 "의견 수렴해 금주 결정"

광주시의회가 민선 8기에 신설된 신활력추진본부의 상임위 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신활력추진본부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논의 중이다.

신활력추진본부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부서로 신활력총괄반과 관광도시과, 도시공원과, 친수공간과 등 4개 과로 구성됐다.

환경생태, 무등산·영산강·황룡강, 랜드마크 건축물 등 도시재생, 경제·산업 등 시정 전반에 걸친 활력 사업을 담당한다.

특히 복합쇼핑몰 유치와 생활 속 공원, 친수공간 조성, 이를 뒷받침하는 관광 마케팅·산업 육성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신활력 업무가 기획 업무가 많아 행정

자치위원회로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도시공원과 친수공간과 등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상임위 배정이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는 상임위마다 2명씩 모여 있는 운영위원회가 맡거나 신활력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별도로 다루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이 이뤄진 만큼 상임위 배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임위 배정은 시의회의 영역인 만큼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훈 운영위원장은 "신활력추진본부의 업무 영역이 여러 상임위와 겹쳐 있다"며 "지난 1일부터 의원들의 의견광 마케팅·산업 육성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신활력 업무가 기획 업무가 많아 행정

# 美 캘리포니아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되나

### 주의회, 8일 결의안 최종 통과 여부 결정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공식 기념일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5·18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현지 시각으로 오

는 8일 오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결의안(HR120)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민 1세대인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HR120에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투쟁한 5·18의 의미와 함께 매년 5월18일을 캘리포니아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지 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결의안에 동참한 의원들이 많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단체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결의안 제정 준비위원회는 당일 오전 의회 인근 하이엇 리젠시 새크라멘토(Hyatt Regency Sacramento)

호텔에서 5·18 기념일 제정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200여명을 초청한 이 자리에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관계자도 참여키로 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세계화를 위한 많은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5·18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 地選 보전비용 광주 74억·전남 219억 지급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 보전비용으로 각각 74억과 219억원을 지급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178명 후보자 중 127명의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총 89억여원에 대해 시·구선관위 서면심사·현지실사 등

을 통해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4억9천여만원이 감액된 74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거 별 지급액으로는 ▲시장(2명) 9억8천여만원 ▲교육감(4명) 18억여원 ▲구청장(8명) 9억여원 ▲시의원(18명) 6억7천여만원 ▲비례대표 시의원(2

개) 1억1천여만원 ▲구의원(89명) 27억6천여만원 ▲비례대표 구의원(4명) 1억6천여만원 등이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69억8천여만원보다 4억2천여만원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전체 606명 후보자 중 500명의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총액 263억1천800여만원에 대해 적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43억2천500여만원이 감액된 219억9천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거 별로 ▲지사(2명) 13억5천여만원 ▲교육감(3명) 32억9천여만원 ▲시장·군수(46명) 44억9천여만원 ▲지역구 도의원(91명) 23억4천여만원 ▲비례대표 도의원(3개) 2억5천여만원 ▲지역구 시·군의원(346명) 99억1천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9개) 3억2천여만원 등이다. /김재정·박선강기자

# 광주농기센터 '농산물 활용 교육' 참가 모집

광주 농업기술센터는 2일 "빛고를 농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조리법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활용 가치 공감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반 시민들이 지역 여성농업인 강사들과 소통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는 교육이다.

주말(토요일)을 이용한 가족참여형 실습체험 교육으로 빛고를 농산물에 대한 탐구와 가지파니니, 애호박 보트 피자 등 색다른 조리법의 음식과 아이들을

위한 쿠키 만들기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10월1일까지 총 5기 수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한다. 기수별 8가족(가족당 6살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2-5명)을 모집해 총 40가족이 참여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8일부터 온라인 '바로예약' 사이트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5기 수 중 한 기수에만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후 빛고를 농산물 구매를 위한 기부담금(5천원)을 입금해야 최종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다. /박선강기자

**더 멀리,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대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안근원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